

# 개미 '총알장전'에... 빚투 20조, 예탁금 70조 '신기록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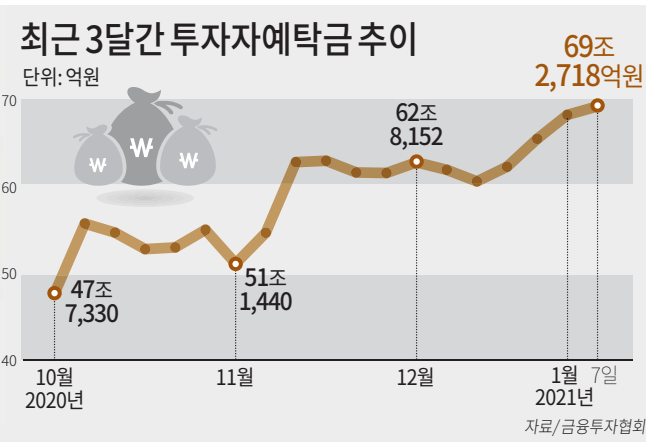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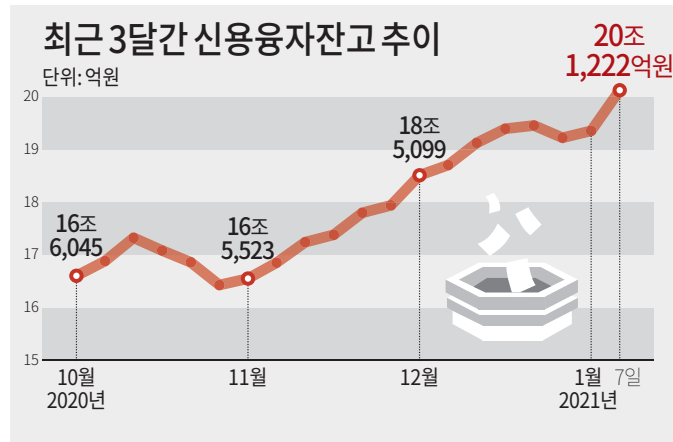
은행·증권사 신용대출 다시 시작  
금투협, 신용용자 잔고 1666억 증가  
코스피 10.1조, 코스닥 10조 집계  
투자자예탁금 69.3조까지 치솟아  
하루 거래대금 40.9조 '최대기록'

역사적 순간을 맞은 것은 증시뿐만이 아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다시 '총알'을 장전하면서 증시 주변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대출 문이 열리자마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빚투(빚내서 투자)' 잔고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선 것. 증시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는 투자자예탁금도 70조원에 달한다.

막대한 유동성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올해 5거래일 동안 9.70% 급등하며 3150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장전된 총알'이 넘치는 만큼 기술적 조정이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 ◆증시 대기자금 역대 최고치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전 거래일보다 1666억원 증가한 20조2223억원을 기록했다.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래 사상 최고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시장이 10조1319억원, 코스닥 시장이 9조9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14일 처음으로 19조원 문턱을 밟은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0조원의 벽을 넘어섰다.

해가 바뀌며 신용용자의 한도와 증권 담보대출이 여유로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부 은행권과 증권사들이 다시 신용대출을 시작하면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일 기준 134조1015억원으로 올해 4거래일 동안 4533억원 늘었다.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 지난 달 신용거래용자를 중단했던 일부 증권사도 다시 문을 열었다.

같은 날 투자자예탁금도 69조2718억원까지 치솟으며 이를 전 기록했던 최고치(69조4409억원) 경신을 눈앞에 뒀다. 이는 2019년 말(27조3933억 원) 대비 40조원 이상 불어난 수준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66조5358

억원을 기록하며 역사상 최고점이었던 전날의 66조5571억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고점에 머물러 있다.

언제든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들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증시 상승을 이끈 것은 개인의 수급으로 2020년 3월 당시 30조원 내외였던 고객예탁금은 현재 70조원에 근접해 있다"며 "이와 함께 사상 최대로 증가한 신용용자잔고를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대부분의 신용거래가 개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유동성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폭증하는 하루평균 거래대금도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전 거래일(8일) 코스피 거래대금은 40조9095억원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했

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30조원에 달한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10~11월 13조1582억원이었으나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18조199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오름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신규 투자자 유입 등 개미들의 시장 참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

### ◆역사적 고점에도 갈 곳은 증시뿐

지난 한 주 코스피는 278.71포인트(9.71%) 오르며 주간 기준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전 기록은 금융위기로 '브이(V)자' 반등을 했던 2008년 10월 마지막 주에 기록한 174.31포인트였다. 지난 8일 전날 증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는 지 하루 만에 100포인트 넘게 상승하며 3152.1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

액도 2170조원으로 최고치에 달한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단기간 급등한 만큼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믿을 구석은 역시 개인의 자금여력이다. '실탄'이 풍부한 이상 조정이 있더라도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라며 "높아보이던 3000선을 넘어섰지만 유동성 장세를 앞세워 이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볼 때"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이상 증시 주변 자금은 다시 주식투자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초저금리 국면 속에 투자처로 유호한 선택지가 증시밖에 없다는 얘기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000선을 넘어선 지수대와 최근 상승 속도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과 저금리 지속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향할 투자처는 결국 주식시장밖에 없다"고 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예금 이자는 낮는데 정부가 부동산 자금 유입을 막고 있어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개미에 피바람 부나... 다시 불거진 공매도 논란

3월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靑 국민청원에 공매도 폐지 청원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불이행  
"증권사, 지위악용 불법공매도 낱말"  
버블제거, 주가하락 시 유동성 제공  
'공매도의 순기능' 재개 필요 입장도



매매차익을 노릴 때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유례없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는 폭락장에 빠졌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동학개미운동'을 필두로 증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새해 들어 코스피는 역사적인 3000선을 돌파했다. 거센 매수세로 주가 하락을 지지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역할 변화가 증시 상승에서 큰 몫을 차지했다는 평가다.

이에 더해 개인투자자는 관련 정책에 관해서도 영향력을 높여갔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을 유예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 '공매도 거래 재개를 중지해 주십시오', '공매도 폐지돼야 한다' 등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작년 상반기 중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적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불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관련 공방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재개 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낱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같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 상승 시 버블을 제거하고, 주가 하락 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665명으로 집계된 10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사흘째 600명대

방역본부, 수도권 400명대 사망자 25명, 누적 1125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 4일 이후 9일 새째 1000명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5명이라고 밝혔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631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 이후 사흘 연속 6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환자 수 역시 사흘 연속 400명대로 집계 된다.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736.6명으로 800명을 웃돌던 전주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 늘어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사망자는 25명 추가 발생해 누적 1125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9일 만에 사망자는 208명으로 200명을 넘었다. 하루 평균 20명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코로나 팬데믹에 유럽 남북 격차 더 확대

한은, 유로지역 내 경제력 격차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럽의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유로지역 내 경제력 격차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남유럽의 경제여건이 북유럽에 비해 크게 악화되면서 성장률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2019~21년 중 이탈리아(-3.6%), 스페인(-3.1%) 등 남유럽 국가 성장률은 독일(-1.0%), 오스트리아(-0.8%) 등 북유럽 국가를 크게 밀돌았으며, 국가 간 성장률 표준편차도 2019년 대비 2배

이상 벌어졌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남·북유럽의 실물부문 경제력 격차가 확대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서로 다르고 두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여건도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남유럽은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경기가 더 크게 위축됐고, 온라인 업무 인프라가 미흡해 방역조치 확대에 의해 경제활동이 더 크게 제약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남유럽의 경우 재정여력이 부족하고, 통화·재정정

책의 경기진작 효과가 낮은 것도 팬데믹으로 인한 남·북유럽 간 격차 확대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팬데믹 이전부터 유로지역 내 경제력 격차 확대는 남유럽의 북유럽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켜 왔다. 역내 지역 간 경제력 편중이 심화되면서 남유럽의 노동력이 임금수준, 취업기회 등에서 월등한 북유럽으로 이동함에 따라 남유럽의 성장잠재력은 약화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